

지역 특성 활용 ‘이중언어 교육’ 강화한다

전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다문화 학생 1만1,367명 5.29%

관계기관 연계 학습지원 시스템

학교적응 ‘징검다리 과정’ 운영

베트남 교육교류 특화 프로그램도

전남도교육청은 다문화 가정과 학생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이중언어 교육을 활성화 하는 등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추진한다.

전남지역 총 학생 수는 19만9,630명으로 이중 다문화 학생은 1만1,367명으로 5.2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조화로운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맞춤형 한국어교육 강화 ▲이중언어교육 활성화 ▲글로벌 역량 중심 학생성장 지원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제 강화를 4대 추진과제로 설정해 다문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맞춤 교육 강화

먼저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글교육과 학교 교육활동에 한국어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교원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사 양성과정 연수를 운영한다.

가족센터나 마을학교 등을 활용해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한국어 사용능력 향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도입국학생과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공교육 진입 원스톱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지역외국어체험센터와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한국어 맞춤형 학습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메타버스 활용 높아·체험

준중과 공생의 이중언어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중언어로 된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이주배경 여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강사를 양성하고 양성된 이중언어강사들은 언어적 격차 해소를 위한 통·번역 인력 및 학교 이중언어강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메타버스를 활용한 놀



김정희 전남도교육청 정책국장이 20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전남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이·체험 중심의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이중언어동아리, 이중언어 페스티벌,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등을 통해 이중언어 사용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별 외국어체험센터는 영어에서 이중언어 사용 중심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특화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글로벌 역량 향상

초등·중학교 전환기 학교적응을 위해 ‘징검다리과정’을 운영해 새로운 학교 적응을 돕고,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을 추진한다. 다문화학생 가정학습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여건을 조성한다.

지역대학과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다문화학생의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운

영해 다문화학생의 진로 설계를 돕는다.

다문화학생 강점을 키우고 교육공동체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남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6월 베트남 호치민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언어·역사·문화·예술 중심의 베트남 교육교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기반 지원

지역 관계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포럼과 전남도의회 주관의 100인 원탁토론을 개최·운영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교육 체제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부모 한국어 교육을 강화한다.

다국어 통·번역 통합지원체제도 구축한다. 온·오프라인 통번역 서비스를 통해 학교 현장의 학부모 상담과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맞춤형 다국어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한다.

베트남 유학 학생 유치 체제 기반을 마련하고, 다문화 교육 벨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민관산학 역량을 결집해 국제직업학교를 신설해 글로벌 사회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다문화학생 국적은 베트남이 5,374명(47.28%)으로 가장 많다.

김정희 정책국장은 “전남의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속에서 포용성과 다문화 감수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전남대, 호남권 초·중등 AI융합교육 본격화

광주·전남·전북교육청 협업

내달 호남권사업지원단 발족

전남대학교가 5,000여명의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AI융합교육 연수를 추진하는 등 호남권 초·중등 AI융합교육을 본격 전개한다.

전남대 사범대학은 교육부의 AIEDAP(아이에다프) 호남권역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미래교육과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아이들의 미래 삶과 공금중에 답한다’는 의미의 AIEDAP 사업(AI Education Alliance and Policy Lab)은 교육부가 수도권, 충청, 경북, 경남,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전국 5개 권역별로 초·중등교원의 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범대학은 ▲초·중등 현직교사 연수 ▲초·중등 협력학교 연계 AI융합 교수학습모형 확산 ▲사범대학 예비교원 AI역량강화 ▲지역교육

청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또 전남대 교육문제연구소는 광주·전남·전북교육청과 협업체제를 구성하고, 총 6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호남권역 현직교원과 예비교원, 호남권 현장학교의 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4월에는 호남권역 사업지원단을 발족하는 등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까지 매년 사업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호남대는 남평중학교 다도분교 재학생 26명을 대상으로 ‘AI 큐브 캠프’를 실시했다. /호남대 제공

광주교육대-일 아이치교육대

자매대학 교류 프로그램 실시

광주교육대는 최근 일본 아이치교육대 교수와 학생을 초청하는 해외 자매대학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교대와 일본 아이치교대는 2011년 교류협정 체결 이후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코로나19로 대면 교류가 중단되었을 때에도 양교의 대학생들이 언어교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다.

이번 초청 프로그램에서는 언어교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류하던 광주교대의 학생들이 버디가 되어 모든 일정을 함께 참



광주교육대는 최근 일본 아이치교육대 교수와 학생을 초청하는 해외 자매대학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광주교육대 제공

여했다.

프로그램은 ▲대학 수업 및 부설초등학교 참관 ▲5·18 민주화기록관, 아시아문화전당 등 지

역문화 탐방 ▲코로나 시대의 학생생활지도 ▲왕따 방지 방안에 관한 워크숍 등으로 이뤄졌다. /황애란 기자

호남대, 남평중 다도분교생 ‘AI 큐브 캠프’

호남대는 정규수업으로는 처음으로 남평중학교(다도분교) 재학생 26명을 대상으로 ‘AI 큐브 캠프’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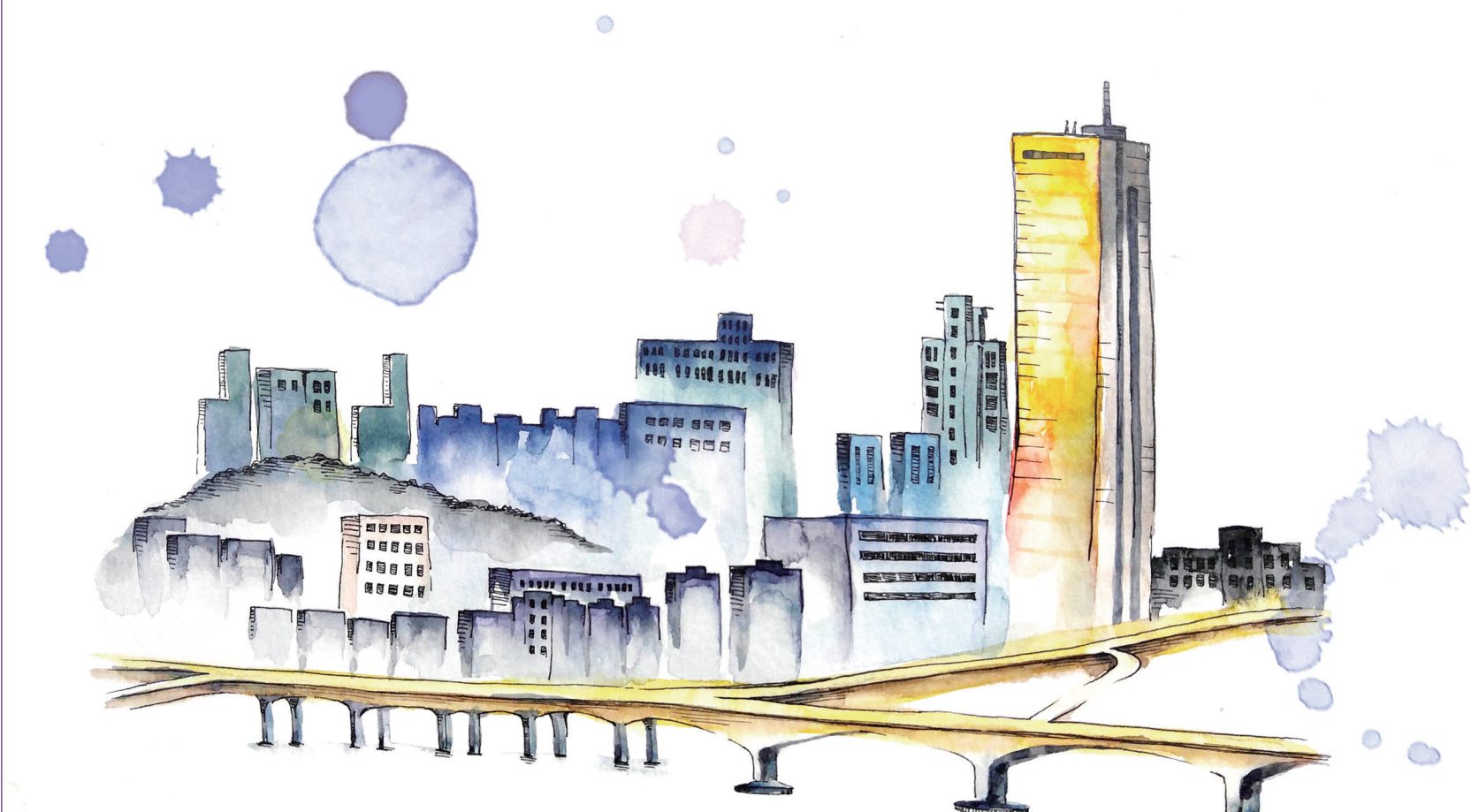
이번 캠프사업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디지털 새(NEW)작(Software·AI Camp) 캠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정보통신공학과 강미영 교수와 김석 교수, 컴퓨터공학과 오명훈 교수, 로봇드론공학과 이용규 교수, AI교양대학 김승재 교수 등이 진행한 이번 수업에서는 인공지능의 이해 수업으로부터 아두이노의 기초와 원리, 휴지통 로봇 만들기 등 응용력을 키우기 위한 내용 위주로 진행

했다.

민옥순 남평중다도분원장은 “호남대에서 진행한 AI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지난달 마련된 성과공유회 현장에서 다도분교도 교육을 희망해 이뤄졌다”며 “대학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고품질 강의를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향후 지속적 교육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디지털 새작 캠프는 오는 2025년 SW 교육 수업 전면 확대를 앞두고 학생 간, 지역 간 디지털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170억 원의 메가 교육 프로젝트다. /황애란 기자



단, 한채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

골드클래스(주) · 골드디움(주) · 골드종합건설(주) · 보광건설(주) · 보광종합건설(주)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 (화정동) 골드클래스 ■ 문 의 : 062) 233-3999